

태풍 '미탁' 전남 피해액 100억원

김 채묘시설 95% 차지...전남도, 피해 농어가 신속 신고 당부

전남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으로 도내 11개 시·군 사유 및 공공 시설 등에서 모두 10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해남 62억4400만원, 진도 35억7900만원, 신안 1억1200만원 등이다. 특히 김 채묘시설 피해가 95억5000만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완도 등에서 주택 83동이 침수되고 1동이 반파해 이재민 1세대 2명(보성)이 발생했다.

영암 등 전 시·군에서 벼 2759ha가 침·관수되거나 쓰러지고, 해남에서는 배추 2300ha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도로 21개소, 하천 3개소, 저수지 1개소 등 공공시설 29곳이 파손돼 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태풍 피해 조사는 공공시설의 경우 10일, 사유시설은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 완료해야 하므로, 전남도는 피해 농·어가의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연이은 태풍으로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농약대 추가 지원과 벼·옥수수, 수박·피해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7일)을 최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앞서 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 복구비는 총 719억원(국비 439억, 지방비 280억원)으로 확정됐다.

신안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고지원이 70억원이 추가돼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복구금액 중 농수산물의 재난지원금이 총 513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농·어가에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링링' 피해로 인한 전국 국비 지원액의 50% 이상을 확보해 놓은 만큼, 농어가 피해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채영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 모두가 피해조사에 입력되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도와시·군 기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복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윤영일 의원 "호남고속철도 안전성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장성군 황룡면 호남고속철도 인근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싱크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윤 의원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해외자원개발연구소는 지난달 27일 '황룡 외룡 농경지 지질조사 용역' 결과 보고회를 통해 황룡면을 통과하는 호남고속철도가 불안정한 땅 위에 건설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농경지 10곳을 표본으로 정해 땅속 50m 깊이까지 지주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모두에서 공동(空洞)이 발견됐으며 이 중에서 3곳은 호남고속철도 철로 양쪽에 분포해 있고 땅 꺼짐 현상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발표했다.

실제 해당 지역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7차례 싱크홀이 발생했던 곳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2017년 12월 일반공학회에 싱크홀과 관련한 안전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고, 고속철도의 안전운행과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해 땅속 빈공간에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채워 넣는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윤영일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원팀으로 협력하기로 한 만큼 관계 기관 합동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태풍이 남긴 흙탕물 비바닥 7일 태풍 '미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에서 군 장병들이 토사를 퍼내는 등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서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91명 사망

전남에서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9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농기계 교통사고는 2219건이 발생해 338명이 숨지고 2445명이 다쳤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 4건(0.2%) △21~30세 12건(0.5%) △31~40세 34건(1.5%) △41~50세 120건(5.4%) △51~60세 336건(15.1%) △61~70세 511건(23.0%)

△71세 이상 1199건(54.0%) △불명 3건으로, 61세 이상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가 77%에 달했다.

월별로는 이양철인 5월과 수확철인 10월 각각 347건(15.6%)과 244건(11.0%)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5~10월 전체 농기계 교통사고의 66.5%인 1476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5건 중 1건 꼴인 49건(20.2%)은 전남에서 발생했으며, 전남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1명(26.9%), 부상자 수는 477명(19.5%)으로 집계됐다.

전남에 이어 △경북 394건

(17.8%) △충남 247건(11.1%) △경남 243건(11.0%) △경기 208건(9.4%)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는 △경북 48명(14.2%) △충남 44명(13.0%) △전북 38명(11.2%) 순이며, 부상자 수는 △경북 432명(17.7%) △경기 270명(11.0%) △충남 259명(10.6%) 순이다.

박 의원은 "61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서 사고발생이 집중되는 것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농기계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농촌 고령화에 따른 폐해로, 고령의 농업인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경량화된 농기계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

10대 10여 명 남학생 집단폭행...경찰 수사

성(性)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등 10여 명이 한 고등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양(17)을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10여 명과 전날 오후 9시50분쯤 광주 서구 한 독서실 건물 지하와 인근에서 B군(18)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양을 붙잡았다. 당시 A양을 뺨 폭행 기담자들은 모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경찰에 'A양 등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따지면서 폭행했다'고 진술하면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사람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권방서 금품 및 복권 출력기 등 훔친 40대

광주 북부경찰서는 북권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30일 오전 3시쯤 광주 북구 한 북권방에 침입해 현금 110만원과 담배 5보루, 복권 출력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 전쯤 같은 혐의로 징역을 살다 출소, 생활고에 시달려 평소 다니던 북권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복권 출력기를 CCTV 저장장치로 착각해 훔친 뒤 영상감 인근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비밀번호 적힌 통장주위 인출 20대 2명 검거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21)와 B씨(21)를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광주 광산구 한 농협과 전남 나주 한 농협 자동화기기 코너에서 비밀번호가 적힌 피해자 C씨(46·여)의 통장을 이용해 현금 14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차례로 A·B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교 동창 사이인 A·B씨는 광산구의 한 농협 자동화기기 코너에서 해당 통장을 주웠다.

하루 200번 112 전화 폭언한 50대 '구속'

하루에 200번 이상 112에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심습적으로 경찰에게 폭언을 해온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5000번 이상 112에 전화해 폭언을 일삼은 A씨(54)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연휴인 지난달 12일 같은 혐의로 경찰에 한 차례 검거됐다가 풀려났지만 지난 2일 밤에도 112에 200번 넘게 전화를 걸고 폭언을 하면서 체포됐다.

인천 해변서 부패 심한 40대 남성 시신 발견

인천시 옹진군의 선제도 인근 해변에서 4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중이다.

7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13분쯤 인천시 중구 선제도의 한 오토캠핑장 인근 해변에서 A씨(41)가 숨진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산책 중 사람이 해변에 쓰러져 있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다.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A씨의 지문을 채취해 거주지가 경상북도 김천인 것을 확인한 상태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